

# 2024 꿈 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

제5호

발행처 매일신문사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홈페이지 [www.youngdream.co.kr](http://www.youngdream.co.kr) 전화 053-255-5001

## “내 꿈을 찾는 소중한 시간”

대구시교육청-매일신문  
‘꿈청진기’ 기자단 활약



대구시교육청과 매일신문사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2024 꿈 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이하 꿈청진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9년부터 진행된 꿈청진기 사업은 지역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관 및 업체를 소개하고, 청소년들이 이 중 선택한 기업들에 대한 사전 분석을 한 뒤 현장에 방문해 직업 체험과 인터뷰를 하는 사업이다.

꿈청진기 사업은 현업에 종사하는 직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사 작성 등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꿈청진기 사업에는 대구지역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에서 총 26팀(총 100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지역 내 12개 기업(네이처파크, 대구시의회, 대구테크노파크, 더퍼스트병원, 리얼테크, 매일신문, 엑스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HS화성, IM뱅크, JH커뮤니케이션즈, TBC)이 학생들의 취재와 체험 활동에 협조해 주었다.

기자단 활동의 결과물은 전문가 심사를 거친 끝에 각 부문별로(기사 작성 부문, 광고 제작 부문)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총 14팀이 선정되었다.

제5호 꿈청진기 신문과 기자단 활동사진 등을 홈페이지([www.youngdream.co.kr](http://www.youngdrea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수상 현황 축하합니다!

구분	기사작성 부문		광고제작 부문		훈격
	학교/팀명	팀원	학교/팀명	팀원	
최우수상	왕선중학교 <가온누리>	하지우, 김나은, 이유진	포산고등학교 <papillon>	곽민준, 조응로, 박세호, 김예은, 손서윤	대구광역시 교육감상
	원화여자고등학교 <빌드업>	박선아, 이수민, 정서연	동문고등학교 <여홍코뿔소>	이대윤, 황광현, 정진우, 배지예, 천혜성	
우수상	새론중학교 <새로ON>	최서윤, 신예빈, 김서현, 박지원	영신중학교 <팩트체크>	장원겸, 조유승, 김은율, 안지현	매일신문 사장상
	왕선중학교 <도도한도라예몽>	도희은, 도지민, 하예랑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꿈을향해한걸음 더>	최서우, 김준기, 남창성	
장려상	복현중학교 <웨일소프트>	추효정, 박고운	왕선중학교 <반딧불>	성효빈, 정지우, 김주하	매일신문 사장상
	복현중학교 <왕꿈트리>	김동호, 전민지, 최혜인, 신주원, 엄주연	도원중학교 <무릉도원>	김지영, 손승희, 윤나영, 송지윤, 김시연	
	강동고등학교 <콩조림>	주은영, 김보민, 유강나린, 전승빈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가자동화속으로>	변재민, 최승우, 황지욱, 김민준, 이정훈	

# IM뱅크



## 기업소개

### 대구은행의 새로운 도약, IM뱅크

IM뱅크는 1967년 설립된 대구은행이 2024년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며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IM뱅크는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지방은행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점을 결합한 뉴하이브리드 뱅크(new hybrid bank)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역은행으로 운영해온 시간 동안 쌓인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과 상생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은행의 장점을 결합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IM뱅크는 2015년 12월 스마트폰 뱅킹 앱 ‘IM뱅크’를 런칭했으며, 최근에는 전자점자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고객들이 금융 접근성에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 기준 IM뱅크의 자산 규모는 약 78조 원에 이르며, 대출자산은 약 56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국내 5대 시중은행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로, 타 은행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것이 IM뱅크의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IM뱅크는 전국에 약 20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영업구역이 제한되었던 기준의 대구은행은 다양한 지역에 지점을 설립할 수 없었으나 시중은행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영업구역 제한이 해제된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 등 기준에 IM뱅크가 닿지 못했던 여러 지역들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 비록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현재의 IM뱅크는 타 시중은행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규모가 작지만 앞으로 자산 규모를 확대해 국내 5대 은행의 과정체제를 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문고 <어흥코뿔소>



## 업종현황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금융서비스, 모바일뱅킹

국내 은행권 경쟁의 핵심 사업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빼놓을 수 없다. 모바일 뱅킹은 이름 그대로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휴대전화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IM뱅크는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늦게 이 서비스를 도입하긴 하였지만 금융처리 비용의 절감으로 은행 수익성을 줄여들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100만 명이 넘는 IM뱅크의 모바일 뱅킹 이용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M뱅크가 이렇게 높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자회사의 이익 증가, 양호한 은행 건전성 지표와 함께 지역민의 높은 충성도 덕분이다. IM뱅크는 금융권 전반의 급격한 변화에도 대구·경북 지역 여수신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이 때문에 인구당 점포(영업점) 수를 유지하면서 지역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등 지역은행으로서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 시장에서는 각 기업이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서 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로 금융서비스를 모바일 등 인터넷 환경으로 옮기는 기술을 말한다.

IM뱅크는 금융서비스만이 아니라 대학생 대상의 인턴십, 고등학생 대상의 ‘독도사랑 골든벨’ 등 각종 장학사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어깨동무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 시중은행 진출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IM뱅크의 미래가 기대된다.

왕선중 (K.O.R.)

왕선중 (K.O.R.)

## INTERVIEW 안재현 IM뱅크 홍보부 대리

### Q. IM뱅크가 대구에서 으뜸가는 은행으로 뽑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IM뱅크는 57년 전에 개업했을 때부터 대구에 본점을 두었고, 점포 수의 80%가 대구 경북에 위치할 만큼 지역민들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민들한테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잘 되어있고 우리 지역만의 특성도 점포에서 잘 알아 그 특성을 바탕으로 주 업무인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잘 해왔기 때문에 대구경제와 함께 같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 Q. IM뱅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금융회사에서는 금융사고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 고객님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 욕심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흔들리지 않으며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Q. 은행에서 일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코로나 시기 때 장사하시는 분들의 매출이 많이 감소해지자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고객분이 대출을 받으려 오셨는데 제가 좀 더 빠르고 관심 있게 도와드렸고, “너무 급해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고객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렸다는 느낌이 들어 그때가 가장 뿌듯했습니다.

### Q. 대구은행이 회사명을 IM뱅크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구은행이라는 이름은 지역적인 색깔이 강해서 전국적인 영업활동이 필요한 시중은행 전환에 맞춰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바일 뱅크 이름인 IM 뱅크로 회사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IM의 의미는 ‘고객을 위한 금융’이자 ‘상상을 뛰어넘는 금융을 세상에 전파한다’(imagine more)는 뜻이기도 합니다.

왕선중 (에너지아이조)

# JH커뮤니케이션즈



## 기업소개

### 새롭고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기술력의 마케팅 솔루션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에 위치한 JH 커뮤니케이션즈(이하 JH)는 김주희 대표에 의해 설립된 디자인·마케팅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회사이다. 온라인 마케팅 경력 10년 이상이라는 커리어로 공공기관에서부터 개인 소호기업까지 다양한 업종과 직업군을 대신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

JH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해 클라이언트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JH 올인원(All in one) 창업 패키지'를 통해 막막하고 어려운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맞춤형 컨설팅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한꺼번에 제안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브랜딩, 디자인, 영상 제작 등 여러 홍보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JH는 최근에 범무법인 애플, 블루미 피부과, 대구 메이커 페스타 등의 홈페이지를 제작했고 '꿈청진기'의 로고 또한 디자인했다.

JH의 마케팅전략은 그들만의 철학이 담겨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NS 마케팅이나 블로그 마케팅만 해도 주 타깃층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 그들의 마케팅 전략이다.

JH만의 색깔을 찾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이미지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JH의 목표라고 밝힌 김주희 대표는 이를 위해 "통찰적으로 사고하고 기획하며 실행하여 고객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라고 말했다.

복현중 <웨일소프트>



## INTERVIEW 김주희 JH커뮤니케이션즈 대표



### Q. 로고 혹은 디자인이 기업 이미지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로고는 기업의 첫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소비자에게 기업을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상징하는 로고나 디자인은 마케팅과 광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 Q. JH 커뮤니케이션즈의 장점 또는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JH 커뮤니케이션즈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통해 자유롭고 편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이 과정에서 각자의 아이디어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또한 고객과의 소통에서도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

갑니다. 우리 회사의 장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직원들이 자신만의 색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생산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 Q. JH 커뮤니케이션즈의 마케팅컨설팅을 통해 예비 창업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JH 커뮤니케이션즈의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 예비 창업자는 창업의 구조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후 마케팅 전략 수립과 홍보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JH 커뮤니케이션즈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Q. 깐깐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진땀을 뺏었던 경험이 있나요?

예전에 한 에이전시업체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에이전시 대표님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결국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신중 <팩트체크>

TBC

TBC

**■ 기업소개****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지역 밀착 방송 미디어**

TBC 대구방송은 1995년 5월 14일 개국 이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디어”라는 방송 이념을 바탕으로 대구·경북 지역 주민의 삶과 목소리를 대변하며 성장해왔다. ‘참여와 소통, 공익과 책임’을 기본 가치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발 빠르게 전하고 신뢰받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방송이념인 “아름다운 대구·경북을 만듭시다”를 실현하기 위해 TBC는 창립 초기부터 지역 밀착형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오고 있다.

TBC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지역 문화와 정보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싱싱고향별곡’, ‘생방송 굿데이’, ‘TBC클리닉 건강365’, ‘돈 워리 비 해피’는 지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들이다.

‘싱싱고향별곡’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깊이 있게 다룬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랑하는 고유의 문화유산과 예술을 소개한다.

‘생방송 굿데이’는 매일 아침 대구·경북 지역의 최신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게스트들이 출연해 토크 쇼 형식으로 진행되며, 때로는 시청자와의 소통 코너도 마련한다.

‘TBC클리닉 건강365’는 지역민들의 건강한 삶을 돋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다양한 질병 예방과 관리 방법을 비롯해 지역민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돈 워리 비 해피’는 청취자의 경제적 고민을 덜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개인 금융과 재테크를 주제로 다양한 팁과 정보를 제공한다.

TBC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지역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지역민들과의 깊은 소통을 지향한다. 지역 밀착형 방송 콘텐츠를 통해 대중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튜브 라이브 프로야구 중계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OTT 산업이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원화여고 &lt;빌드업&gt;

**■ 업종현황****지역 방송사의 경쟁력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서 시작**

TBC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정서를 공유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며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TBC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방송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깊은 소통과 봉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지방시대’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와 경북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지역 행사, 관광 명소 등을 방송에 담아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널리 알리는 효과로 인해 자자체와 방송사 간의 유기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발달로 전통 방송사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TBC는 지역 방송사만의 강점을 살리고자 노력 중이다. TBC 관계자는 “OTT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역 방송사로서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가고 있다”며, “TBC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지역성을 반영하는 방송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의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밀착형 방송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변화하는 시청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OTT와의 경쟁에서도 차별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TBC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방송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넘어선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원화여고 &lt;빌드업&gt;

**■ INTERVIEW 신상윤 TBC 아나운서****대구·경북의 아침을 여는 TBC, 지역 방송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하다****Q.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나운서는 방송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로 뉴스 진행을 맡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로 활동하며, 청중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아나운서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중립적인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하죠. 또한 우리가 전하는 정보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신중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Q. 최근 이루어낸 TBC의 주요 성과 중 하나를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일까요?**

최근 큰 성과 중 하나는 ‘지방시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구·경북 지역의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과 행사들을 소개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Q. ‘지방시대’ 프로그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방시대’는 지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문화 행사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돋는 프로그램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관광 명소를 소개하면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TBC가 지역 방송으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라시나요?**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싶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유익하고 신뢰받는 방송사가 되는 것이 TBC의 목표입니다.

원화여고 &lt;빌드업&gt;

# 대구시의회



## 기업소개

### 시민의 삶을 살피는 ‘민생 중심 의회’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있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대구시의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된 3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대구 시민을 대표하여 정책을 의결하고, 관련 집행 기관과 그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 대구시의회는 1991년에 개원하였다. 대구시의회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시민과 소통하며, 자신이 속한 위원회에 속하여 회의를 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한다.

대구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41일간 제 313회 정례회 회기 일정에 돌입하였다. 본회의와 행정사무 감사를 개최하여 2025년도 대구시 및 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8건, 제 · 개정 조례안 11건, 동의안 13건 등 총 32개 안건을 심의했다.

대구시의회는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슬로건으로, 대구시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시민을 살피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열린 소통을 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 시민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활동하고, 약자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다.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 학대, 가정 폭력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 대구 치맥 페스티벌지원 방안’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구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녹지 조성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과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 한다. 문화축제와 예술 행사 지원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풍요로운 대구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년에도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정책 심의와 조례 제정 등 대구시의회의 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여 살기 좋은 대구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새론증 <새로ON>



## INTERVIEW 이재숙 대구시의원

### 책임감 갖고 일할 때 신뢰 얻어

#### Q. 시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논의해야 시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Q.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 행사나 축제에 가면 시민들과 악수를 하며 눈인사를 합니다. 친근감을 표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요.

#### Q.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요소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업종현황

### ‘살기 좋은 대구’ 위해 소통하는 시의회

대구시의회는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 의회’의 슬로건으로 발전하는 대구, 살기 좋은 대구가 되도록 행정 기관과 소통하며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가장 시급한 노인 정책을 투표하는 실태조사에서 돌봄 분야(38.7%)가 1위를 차지한 노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구시의회는 고령 장애인 돌봄 및 돌봄 가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령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대구시의회는 ‘2024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4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7월 3일부터 7일까지 대구 두류공원에서 진행되었던 행사에서 열기를 띠어줄 연예인을 섭외하고, 좌석을 늘리는 등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했다. 이에 100만 명이 대구를 방문하여 축제를 즐겼으며, 45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발생시켰다. NHK 방송이 현장을 보도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10월 23일 ‘꿈을 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 활동을 위해 대구시의회를 찾은 학생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숙 의원(동구 제4선거구)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발로 뛰고 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지역 문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나아가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시의회의 행보가 기대된다.

새론증 <새로ON>

## 한가요?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제도를 지원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 Q.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 있을까요?

꿈 청진기, 모의국회, 모의 지방의회와 같은 체험활동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Q. 시의원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항상 꿈을 꾸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며, 자신을 가꾸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이를 즐기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 보세요. 훗날 멋지게 성장한 여러분들과 시의원으로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응원하겠습니다.

원화증 <그린나래>

# 네이처파크



## ■ 기업소개

### 온 가족이 즐기는 ‘교감형 생태동물원’

약 39만7천m<sup>2</sup>(12만 평)에 달하는 부지의 식물원 내 글라스하우스 동물원과 방사형 야외 동물원을 갖춘 네이처파크. 이곳에는 50여 종, 300마리 이상의 동물과 350여 종의 수목, 1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꽃들이 공존하고 있다. 네이처파크는 동·식물을 위한 시설을 잘 갖춘 전국 최초 교감형 생태 동물원이다.

네이처파크는 동물의 자연스러운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체험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nature(자연)’와 ‘park(공원)’가 합쳐진 ‘네이처파크’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자연스러운 생태계’라는 콘셉트는 전국 최대 규모의 파충류 전시관인 ‘랩타리움’에서도 느낄 수 있다.

랩타리움의 유리 전시관 내부는 식물과 바닥재, 흙과 자갈 등을 사용해 생태계를 만들었고,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동·식물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다. 배설물도 박테리아로 자연분해를 해 처리하는 등 파충류들의 서식 환경을 자연 그대로 재현했다.



고 생각했다.

네이처파크 관계자는 “온 가족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네이처파크에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네이처파크에는 다람쥐 원숭이, 흑표범, 알락꼬리여우 원숭이, 마라, 카피바라, 프레리 독, 알파카, 호랑이, 사자, 비어디 드래곤, 아프리카 거위 등 식육류, 설치류, 우제류, 기제류, 유대류, 영장류, 조류, 파충류 등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힘든 신기한 동물들이 많다.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네이처 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오면 좋겠다

왕선중 (e스포츠소년단)

동문고 (어흥코뿔소)

# 대구테크노파크



## ■ 기업소개

### 기업인의 든든한 파트너…신성장 동력 창출

자신을 응원하고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가 하나만 있어도 그 삶은 매우 축복받은 삶이다. 기업인들의 그런 친구가 바로 대구테크노파크이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지역전략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대구테크노파크는 1998년 12월 2일 설립되었다. 대구테크노파크의 임원은 이사장 2명, 이사(당연직) 7명, 이사(선임직) 6명, 감사(선임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테크노파크의 핵심 가치는 ‘현신’, ‘신뢰’, ‘전문성’이다. 또한 정책목표 및 방향은 ‘파워풀 대구를 만드는 파워풀 기업 파트너 대구테크노파크’, ‘새로운 아젠다 제시를 통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영이념은 ‘우리는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내고, 세계적인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을 만든다’이다. 이렇듯 대구테크노파크가 추구하는 가치를 살펴보면 대구테크노파크가 지역과 기업인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테크노파크는 기업인들을 돋고자 제품 실용화를 위한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대구 5대 미래산업 기업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개발’, 기술을 보유한 공급자로부터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이전 및 중개 지원을 하는 ‘기술이전’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테크노파크 김한식 원장은 기관소개 인사말을 통해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해 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여러분은 성장과 혁신의 원천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대기업이 거의 없는 지역 경제에서의 기능과 역할은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를 미래 첨단산업의 중주 도시로, 청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발전하는 상생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대구테크노파크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기업인들을 도와 대구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북중 (GBC)

경북기계공고 (가자동화속으로)

HS화성

HS 화성

엑스코

exco

기업소개

탄탄한 기술력 · 품질 관리…글로벌 입지 강화

HS화성(HS HwaSung)은 1958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파트 건설업체로, 오랜 역사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택 건설 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룬 기업입니다. 본사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및 주거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HS화성은 설립 아래 꾸준히 품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며 고객의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HS화성은 ‘창의·혁신·조화’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항상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뿐만 아니라, 주거지 개발 과정에서 품질 관리와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HS화성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로 유명하며, 사람들에게 평안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HS화성은 환경을 고려한 건설을 중요시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설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HS화성은 주거지 건설에만 그치지 않고, 상업 시설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함께 개발하여 종합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선사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에는 학교, 병원, 상업시설 등이 포함되어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돋고 있습니다.

HS화성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HS화성의 건설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건설 업체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내며 해외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HS화성은 건설 업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혁신적인 기술과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 제공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HS화성은 지난 60여 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지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경북기계공고 <동로드>

HS HWASUNG

# HS화성, 지속 가능한 미래에 도약하다.

**Park Dream ?**



세상을 바꾸는 녹색 디자인

- ▶ 환경 저감 인증 협약(MITI)인증 기관  
인·나·인(인증기관)은 고도 달성을 품  
으로 신선한 주거환경을 찾았습니다.

**HS ?**



새로운 시대의 시작.

- ▶ 2021.7.1. 착공예정 HS Human Sustainability City(인류 위한 친환경인증  
600평 미만 아파트)이며 디날(평생)으로  
도약합니다.

**EHCRA ?**



시작, 기원, 본질

- ▶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디날(평생)으로  
고객에게 더 넓은 행복과 나눔의 철학  
도약합니다.

 **주요사업**

대구도시철도 3호선 7공구 건설공사

**● 건축사업**

한신 기술과 첨단 공법으로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조합니다.

**● 조경사업**

첨단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미세한 거울문화를 추구합니다.

**● 조경사업**

인간과 자연을 배려한 경직한  
문화를 강조합니다.

**● 환경/신재생 산업**

쾌적한 미래를 위한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 토목사업**

도시 인프라 건설을 통한 미  
래기회를 창조합니다.

"당신의 꿈이 곧 HS 화성의 꿈입니다."

HS화성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흥대구로 111

대표전화 : (053) 767-2111

경북기계공고 〈꿈을 향해 한걸음 더〉

기업소개

## 대규모 전시회 기획 · 개최…지역 발전 기여

‘세계를 잇는 다리’ 엑스코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손을 잡아 함께 행사와 전시를 개최하는 전문 전시 시설이다. 연예인들의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하며,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예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다.

1995년 7월에 법인이 설립된 대구 엑스코는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했으며, 지방 최초의 전시컨벤션센터다. 엑스코는 서관, 동관, 본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서관과 동관에는 각각 3개의 전시관이 위치하고 있고 컨벤션홀, 그랜드볼룸 등의 시설들이 있다.

대표적인 전시회로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메디엑스포코리아’ 등이 있다. 엑스코에서는 산업전시회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국제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시회를 기획·개최하고 있으며, 엑스코 홍보 및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대구와 엑스코,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홍보 활동으로는 언론보도와 방송보도, SNS 이벤트,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엑스코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엑스코 임직원들은 분기별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치나눔 봉사, 빵나눔 봉사, 훌몸노인 급식 제공, 야외광장 버스킹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엑스코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는 상업 전시회와 소비자 전시회로 구분된다. 소비자 전시회는 시민들도 참여하는 전시회로 ‘대구 베이비&키즈페어’와 ‘고양이 전문 박람회 가냘지도 캣페어’ 등이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왕선중 <클라우드>

간부주 <GBC>

# 더퍼스트병원



## 기업소개

### 대구 달성군의 종합 의료 허브, 더퍼스트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더퍼스트병원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퍼스트병원은 환자 중심의 설계로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 환경을 조성했다. 최신 의료기기를 도입하여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병원의 의료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진 구성에 있어 더퍼스트병원은 탁월한 면모를 보인다. 박재현 대표원장(내과 전문의,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내시경 세부 전문의)을 필두로, 김민철 병원장(내과 전문의, 소화기 내과 내시경 세부 전문의), 정재욱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박중호 진료원장(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전문의들이 협력하여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퍼스트병원의 주력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밀 종합 건강검진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다. 둘째,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주도하는 척추 및 관절 치료 서비스 제공이다. 셋째, 내시경 세부 전문의들이 중심이 되어 고품질의 소화기 질환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퍼스트병원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는 것은 ‘스마트 협진 시스템’이다.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케 하여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유연한 운영 시간 역시 더퍼스트병원의 강점 중 하나이다. 평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특히 일부 의료진의 경우 평일 저녁 9시까지 진료를 실시하여 직장인들과 주말에만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1호선 설화명곡역과 가까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믿음 가는 전문 의료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되는 더퍼스트병원은 앞으로도 ‘맞춤형 프리미엄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며 지속적인 의료 품질 향상과 환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산고 <Papillon>

## 업종현황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근한 병원

의학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으로 그치지 않고 전염병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 있어 의학이란 인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이다.

현재 한국 의료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OECD에서 가장 높은 대장암 생존율을 자랑하며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0개로 OECD 국가 평균인 5개의 두 배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발전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의료 체계와 정책은 1945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1948년 설립되었다. 설립 직후의 의료산업 발전은 미미하였으나 한국전쟁 이후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과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한 미네소타대학과 서울대학교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은 전성기로 불릴 수 있을 만큼 많은 투자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뛰어난 접근성을 지녔으며 지역과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친근한 병원’ 더퍼스트병원의 미래가 기대된다.



포산고 <Papillon>

성산중 <새봄성산>

#### INTERVIEW 박재현 더퍼스트병원 대표 원장(내과 전문의)



#### Q.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무엇인가요?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갑자기 늘어난다면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인구 수와 연령 분포도 생각하면서 타이밍에 맞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 Q. 의사생활 중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의사생활은 아니지만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특히

시험을 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의사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에는 암기해야 할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 Q. 의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아프지 않게 퇴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자와 의사 모두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Q. 의료산업에 AI도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미 AI 기술은 대학병원 등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AI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의료산업 역시 크게 발전할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왕선중 <집에가고싶은학생들>

# (주)리얼테크

리얼테크  
REAL TECH Co., Ltd.

## 기업소개

### 드론 산업의 핵심 리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점점 열리고 기계화 산업이 점차 발전하고 있는 요즘, 수많은 분야 중에서도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운송, 군사, 촬영, 농업, 소방 등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드론.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 본격적인 드론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리얼테크는 드론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드론 산업을 이끌어 갈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리얼테크는 일반 드론과 특수 드론의 개발과 제작도 직접 하고 있으며, 드론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리얼테크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REAL SKY라는 드론 비행 교육 시뮬레이터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REAL SKY는 초, 중, 고, 대학 및 교육기관과 드론 관련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환경을 시뮬레이터에 구현하고 있다. 또한, 국가 자격증 실기 교육과 전문 기술교육, 임무 특화 조종교육(시설물 관리, 경찰 및 소방 수색 조종, 항공 촬영, 3D맵핑 및 측량)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콘텐츠들도 고루 담고 있다. 실시간 네트워킹 방식으로 음성채팅을 통한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원활한 교육도 가능하며, 초경량 비행 장치 자격증 시험장을 3D로 동일하게 구현하여 비행 장치 자격증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리얼테크는 단순히 드론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론의 개발부터 제작, 조종까지 전 분야를 교육하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얼테크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도약하는 핵심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유이다.

왕선중 <도도한도라예동>



도원중 <무릉도원>

왕선중 <도도한도라예동>

## 업종현황

###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드론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과 일상생활에 점점 스며들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드론 전문 시장조사기관 Drone Industry Insights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306억 달러(약 40조 9천억 원)로 추산되며 2023년까지 연간 복합 성장률은 7.8%, 상업용 시장은 8.3%의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또한 2030년까지 전체 시장 가치가 558억 달러(약 74조 6천 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드론의 활용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농·임업용, 항공 촬영용, 취미·레저용, 물건 배달용, 감시·구조용 등 일상생활에서만이 아니라 3D 항공 촬영 기술, 자동 GPS 추적 기능, 추락 방지 기능 등 항공 및 군사 분야에서도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드론은 IoT의 기술과 접목되어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란 기대도 받고 있다.

이처럼 드론이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직접 투입되어 수행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정찰이 가능하며, 인체에 해로운 환경에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Q. 리얼테크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과 능력이 중요한가요?

인성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함과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언제든 배울 수 있지만, 인성과 책임감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된 인재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 Q. 현재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추진력 있게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에도 대학은 가지 않았지만 드론에 대한 열정으로 입사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배우며 일하고 있고 저와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신중히 고민한 뒤,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도원중 <무릉도원>

#### INTERVIEW 이충관 (주)리얼테크 대표

### 진정한 기술로 승부하는 기업이 될 것

#### Q. 대표님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나요?

회사 이름처럼 진정한 기술로 승부를 해보자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만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Q. 드론 산업에서는 어떤 고충이 있나요?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배운 기술자들이 많아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인프라 구성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많이 배출되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매일신문

매일신문

기업소개

업종현황

##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성장하는 매일신문

1946년 3월 1일 ‘남선 경제신문’으로 첫발을 내디딘 매일신문사는 대구광역시 서성로에 자리 잡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취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구·경북 최대의 일간지이다. 현재 매일신문사에는 약 2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약 280억 원이다.

서울, 대구, 경북 등지에 총 245개의 지국을 두고 있는 대구 경북 대표 일간지인 매일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전국 소식을 다루고 있다. 매일신문의 논조는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시사 및 정치 기사보다는 지역 뉴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땀과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라는 사시를 지켜나가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가 보편화되면서 뉴스와 신문도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매일신문 역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중이다.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와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디지털 논설실장’, ‘디지털 논설위원’ 등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변화를 시도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역신문 최초로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달성했고 현재는 약 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할 정도로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부터는 KT IS(케이티 아이에스), 쓰담 마케팅과 협력하여 아파트 디지털 게시판인 ‘타운보드 L’을 공동 운영 중이다. ‘타운보드 L’은 종이 게시판의 불편을 해결하고 실시간 공지사항과 맞춤형 정보를 송출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최근엔 매일신문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홍보를 돋기 위한 ‘AI 기반 전단 송출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소통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창간 78주년을 맞은 매일신문은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매일신문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진실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복현중 <왕꿈트리>



강동고 <콩조림>

복현중 <왕꿈트리>

## 신문기자는 AI로 대체될까?

기자란 새로 일어난 일이나 정보를 방송, 신문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직업이다. 즉, 기자는 사회 각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사건 등을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빠르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한다. 때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잘못 알려진 정보를 지적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런 기자의 역할도 4차 산업 혁명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AI가 오늘 날씨와 어울리는 메뉴를 정해주고, 외국인과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직업군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으며 기자 역시 마찬가지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자가 AI를 사용하여 기사를 쓴다는 답변을 했는데 ‘녹취, 번역, 교정 등에 활용’(43.9%)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자료의 수집과 분류에 활용’(24.5%)이 두 번째로 많았다.

AI와 같은 신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만 이로 인해 여러 직업이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기자’라는 직업은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중 하나이다. 정확성, 심층성, 불편부당성 같은 가치를 지키며 양질의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지 보자면 AI가 쓰는 기사는 인간 기자들을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렵다. 특히 과학기술, 의학, 법률, 환경 등 심층취재가 필요한 특정 분야에서는 전문기자의 가치와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Chat GPT와 같은 AI가 더 발전하여 기사 작성에 도입되어도 기자라는 직업을 대체할 수는 없다. 물론 지금처럼 생성형 프로그램 AI가 전문성 있는 기사를 쓰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AI는 정확성, 심층성 면에서 인간 기자보다 부족하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글을 생산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자들은 AI를 잘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활용해주길 바란다.

재정적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문사의 수익 구조는 광고의 비중이 큽니다. 지방에는 비교적 대기업이 적어 광고주들과의 접점이 적습니다. 지역의 경제가 나빠지면 신문사가 받게 되는 광고 수익이 줄어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다른 어려움은 취재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매일신문사는 많은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고, 대통령실 등 다양한 기관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상당수의 지방신문사는 출입의 제한으로 인해 취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 Q. 기자가 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기자가 되려면 영어와 글쓰기에 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다양한 신문 기사와 책을 접해보고 심도 있게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 Q. 기사 작성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진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자는 자신이 작성한 기사가 불러 올 파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을 열정적으로 취재하여 제대로 사건을 파악한 후 기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Q. 지방신문사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Q. 기자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001년도에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취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홀로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매일 직접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다음 날, 해당 신문 기사를 읽은 독자들로부터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매일신문사의 가장 대표적인 코너 중 하나인 ‘이웃사랑’이라는 코너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그분께 후원금을 전달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강동고 <콩조림>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 기업소개

### 디지털 시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여러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는 곳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09년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되어 현재의 이름으로 자리 잡은 공공기관이다. 2024년 기준 약 5조 5,000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본부, 인공지능정책본부, 공공데이터 본부 등 8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 본원 외에도 제주 NIA 글로벌센터, 서울사무소 등지에서 ICT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가 디지털 대전환 선도 기관’이라는 비전과 ‘디지털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간다’는 사명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데이터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특히 AI 시대가 시작되는 만큼 인공지능정책본부와 인공지능융합본부를 통해 AI가 일으킬 수 있는 윤리, 안정성 등의 문제를 예측하고 신뢰성 제공을 위한 제반 마련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 전략과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사회 대응 및 법 제도를 연구하고 융합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한 지역사회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등 다가오는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능정보사회를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들로는 공공마이데이터와 디지털 포용정책 등이 있다. 공공마이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정보 주체인 개인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돋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개인 데이터의 주체적 활용을 촉진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 포용정책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러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AI 같은 기술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는 그날까지 진흥원의 행보는 계속된다.

왕선중 <가온누리>

## ■ 업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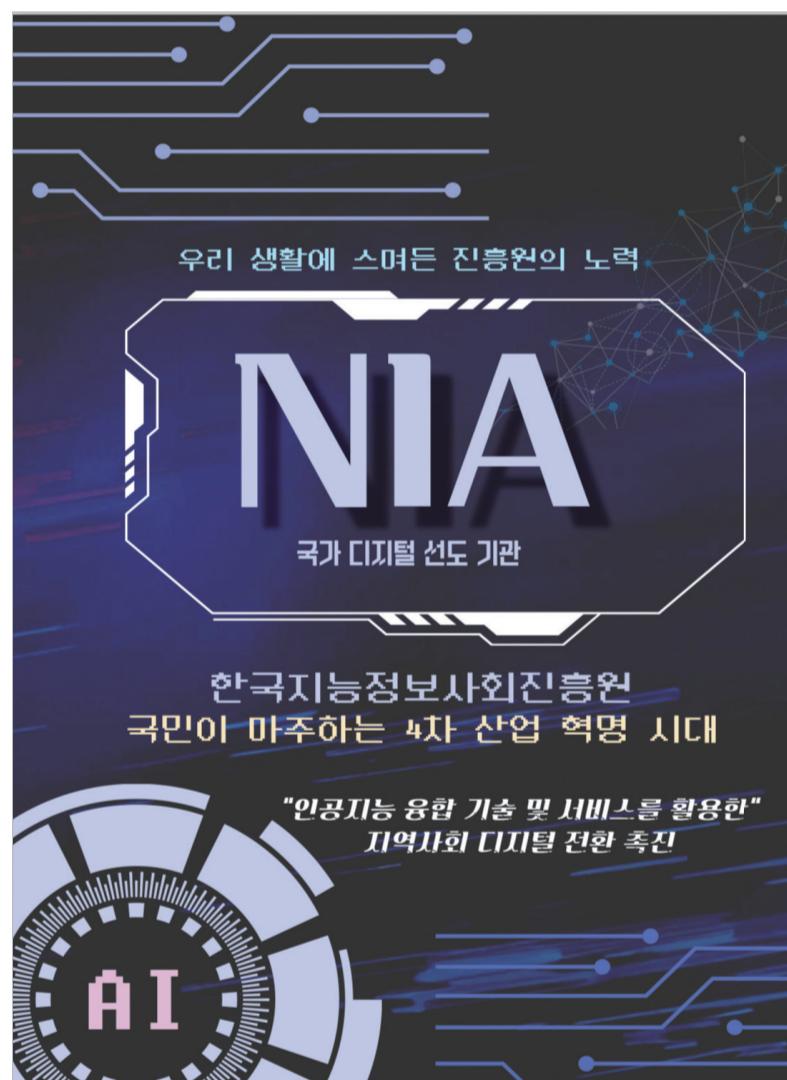
### 건강한 디지털 시대를 위한 발걸음

대한민국의 정보화 정책을 지원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 혁신과 사회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리 일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 버스 등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때 약국에 입고된 마스크 수량 데이터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 기술 역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역할이었다. 이처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대한민국이 지난 31년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ICT 신기술을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기술을 보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과거와 비교하여 우리 생활에 활용되는 AI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은 AI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 이자 과제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AI를 개발하는 것보단 AI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여러 행정 분야에 적용하여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회,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지털 포용 강화를 강조하고 디지털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왕선중 <가온누리>



왕선중 <가온누리>

#### Q.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매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터’입니다. 인공지능과 신기술의 활용에 대해 교육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각지에 천여 개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Q.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최근 논란이 된 사건 사건이 바로 딥페이크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AI 관련 소양교육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LG, 네이버 등 기업들이 사용하는 AI가 인종차별, 성차별 관련 문제를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선중 <가온누리>

#### Q.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도하는 ESG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 사업이 있지만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공공 마이데이터’입니다. 옛날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면 종이에 인쇄하여 제출했지만 지금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때 인쇄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공 마이데이터’라고 자신의 데이터라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하며 무려 6억 장의 종이를 절약했습니다. 이 6억 장의 종이를 절약한 것을 나무 수로 환산하니 약 14만 그루를 살린 것과 같습니다.

## ■ INTERVIEW

### 조성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팀장

#### Q.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도하는 ESG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 사업이 있지만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공공 마이데이터’입니다. 옛날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면 종이에 인쇄하여 제출했지만 지금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때 인쇄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공 마이데이터’라고 자신의 데이터라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하며 무려 6억 장의 종이를 절약했습니다. 이 6억 장의 종이를 절약한 것을 나무 수로 환산하니 약 14만 그루를 살린 것과 같습니다.

#### Q.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매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터’입니다. 인공지능과 신기술의 활용에 대해 교육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각지에 천여 개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Q.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최근 논란이 된 사건 사건이 바로 딥페이크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AI 관련 소양교육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LG, 네이버 등 기업들이 사용하는 AI가 인종차별, 성차별 관련 문제를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선중 <가온누리>



#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



따뜻한 마음을 키워 올바른 인성을 기르겠습니다  
학습역량을 높여 모두의 성장을 돋겠습니다  
더 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모두의 가능성을 열겠습니다  
학교의 안전을 채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배움의 장을 넓히겠습니다

## 꿈 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



꿈청진기는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직업정보, 기업 분석, 직업인의 특성 등에 대한 취재활동을 바탕으로 보고서, 온라인 기사작성 등 청소년의 시각을 통해 다양한 진로체험 결과물을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